

# 단어의 의미 확장과 어휘 체계<sup>1)</sup>

최 경 봉  
(원광대학교)

Choi, Kyeong-Bong. 2000. The role and function of lexical classified system in the extension of word meaning. *Linguistics*, 8-2, 177-19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lucidate the role and function of lexical classified system in the process of the meaning extension of words. In the theory of Generative Lexicon(Pustejovsky 1993, 1995), the construction of the word meaning is represented by 'Qualia structure' and the extensional meaning of the word is the result of the operation of 'Qualia structure'. In this respect the regular polysemy can be explained by 'Qualia structure'. In this paper I accepted 'Qualia structure', but I altered 'Qualia structure' into construction of word meaning that included lexical classified system. This revised construction is useful for explaining extensional polysemy(polysemy that occurred meaning extension), because the cases of extensional polysemy have a close connection with lexical classified system. (Wonkwang University)

## 1. 서론

본고는 단어의 의미 확장 현상에서 어휘 체계<sup>2)</sup>가 작용하는 양상을 밝힘으로써, 단어 의미의 문맥 내 변이 양상을 어휘론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문맥 내에서 단어 의미의 변이는 문맥을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 작용이나 화용적 맥락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단어는 문맥 조건에 따라 의미의 특정 국면을 활성화시키거나 의미 영역을 확장하는 방

---

1) 이 논문은 1999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2) 본고에서 어휘의 분류 체계와 어휘 체계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휘 체계의 연구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의미장(semantic field)과 의미망(semantic network)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전통적인 분류 어휘집의 유형 분류 방식을 들 수 있다. 어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연구로는 Fellbaum(1998)을 참조하라.

범으로 문맥 의미를 획득한다. 따라서 문맥 내 변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 영역'과 '단어의 속성 의미'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이것의 작용 양상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경봉(1998)에서는 이러한 문맥 의식 아래 '단어의 속성 구조'란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단어의 의미 구성체로 파악하였다.<sup>3)</sup>

그러나 단어 의미의 문맥 내 변이 양상에 대한 논의는 많은 부분 단어의 속성 의미가 작용하는 양상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어휘 체계가 문맥 내 변이에 관여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였다. 어휘 체계와 문맥 내 변이 양상이 관련되는 것은 의미 영역이 확장되는 변이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의미 속성이 전환(conversion)되는 변이인 만큼, 해당 단어의 어휘 체계 내 위치 변화와 관련지어 고찰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단어의 의미 구성을 '속성 구조'와 '분류 체계'의 결합체로 가정하고 단어의 의미 확장 과정에서 단어 의미 구성의 역할을 논할 것이다. 따라서 단어의 의미 확장 과정을 어휘 규칙화한다면, 어휘 규칙은 속성 구조의 작용 규칙과 의미장(semantic field), 의미망(semantic network) 등으로 표현되는 어휘 분류 체계의 작용 규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sup>4)</sup>. 본고의 논의는 다음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2장은 본고의 전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단어의 의미 구성에서 어휘 체계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3장에서는 의미 확장 양상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서, 단어 의미 구성의 속성역 정보의 전환이 부류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체계적임을 밝힐 것이다. 4장에서는 단어의 의미 확장과 어휘 체계의 관련성을 표현의 확대 재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볼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은유적 의미 확장이 매체어의 어휘 체계와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일 것이다.

3) 최경봉(1998)에서 제시한 단어의 의미 구성은 Pustejovsky(1993, 1995)의 '속성 구조(Qualia Structure)와 의미장(semantic field) 개념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4) 최경봉(1999)에서는 다의성을 '의미 구성 작용에 의한 다의성'과 '의미 확장에 의한 다의성'으로 나눈 바 있다. 이는 단어의 의미 구성 정보들이 선택적으로 활성화되어 일어나는 다의화와 단어의 의미 구성 정보가 전환됨으로써 발생하는 다의화를 구분한 결과였다.

## 2. 어휘 체계와 단어의 의미 구성

단어의 속성 의미는 어휘를 의미 분류하는 근거가 되지만, 의미를 기준으로 한 어휘의 분류 체계는 단어의 속성 의미를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단어의 속성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어휘 체계를 파악하는 두 과정은 동시에 진행되는 성격을 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 단어가 연결된 전체적인 구성망과 단어 자체의 속성 의미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문맥을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의미 관계를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최경봉(1998)에서는 단어의 의미 구성이 '단어의 속성 정보'와 '어휘 체계 정보'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Pustejovsky(1993, 1995)의 논의를 적용하여 단어의 의미 구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명사를 중심으로 한 논의였으나, 여기서 적용된 의미 구성의 기술 방식은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5)</sup>.

최경봉(1998)의 견해는 '어휘 체계 정보'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Pustejovsky(1993, 1995)의 논의와 차이를 보이는데, 단어의 의미 구성에 어휘 체계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단어가 속한 어휘 체계의 성격이 구문의 특성을 규정하는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예는 어휘의 분류 체계와 대명사의 쓰임과의 상관성을 나타낸다<sup>6)</sup>.

- (1) a. \* 나무는 자기의 뿌리를 땅에 박고 자란다.
- b. 앞들도 저녁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 c. 둘은 \*자기 / \*자신 / 자체의 풍화 작용으로 변한다.
- d. 인간, 그는 이 넓은 지구의 지배자이다.
- e. \*사자, 그는 이 울창한 밀림의 지배자이다.
- f. 그가 학교를 떠난 이상 언제 다시 여기에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 g. 그것은 철수가 때린 꿈이다.

5) 속성 정보는 단어의 품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속성 정보는 각각 다른 구조로 나타난다. 이는 명사가 대상 자체를 나타내는 반면 동사나 형용사는 이러한 대상의 존재 양식을 나타낸다는 점 때문이다.

6) 본고에서는 대명사와 명사의 관계만을 밝혔으나 '비가산명사'나 '집합명사'의 통사·의미적 특성이 거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강범모(1992)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류론적 비판은 최경봉(1998)을 참조할 수 있다.

(1a-f)의 예를 보면 명사는 그것이 유정물로 분류되는가 아니면 무정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대명사의 선택에 차이를 보인다. 또한 같은 유정물 명사라고 해도 그것이 인간을 지칭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명사의 선택이 달라진다. (1f-g)의 경우는 무정물 명사가 공간성을 갖느냐 개체성을 갖느냐에 따라 대명사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동사나 형용사와의 공기 현상까지 고려한다면, 해당 명사가 어떤 의미 분류 체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sup>7)</sup>.

- (2) a. 철수가 학교에 간다.  
 b. \*철수가 학교에 움직인다.  
 c. 철수가 친구에게 책을 주었다.  
 d. \*철수가 친구에게 책을 이야기했다.

(2)의 예 또한 동사가 어떤 의미 유형이냐에 따라서 그것의 논항구조가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사의 의미 분류 체계가 동사의 구문 내 역할에 대한 설명과 맞물려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위의 예에서는 해당 동사가 '이동'동사인가 '수혜'동사인가의 여부가 적합한 논항 구조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이는 동사의 의미 분류 체계가 보다 정교화되면, 동사의 통사·의미론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함께 정교해질 수 있음을 말해 준다<sup>8)</sup>.

- (3) a. 철수가 매우 부자이다.  
 b. \*철수는 매우 선생이다.  
 c. 가방 아주 밑에 담배를 숨겼다.

7) 양정석(1999)에서는 개별 동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어휘의미 기술이 주어진다 면, 이를 기초로 하여 논항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체계가 수립될 수 있음을 개념의 미론의 방법론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서술동사의 어휘적 특징에 따라 구문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우형식(1996)에서도 나타난다.

8) 어휘개념구조에 의해 동사의 의미 분석을 행하는 연구는 동사의 유형화를 의미 단위에 의한 어휘 해체를 통해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채택하는 'DO, CAUSE, CHANGE, STAY, GO ...'등과 같은 의미 단위가 결국은 분류 체계의 분류 기준이 되며, 분류 체계상에서 상위 동사(high level verb)에 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어휘체계' 중심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3)의 예도 명사와 부사의 관련성에 있어서 부사와 명사의 의미 분류 체계가 그 문장의 문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sup>9)</sup>. '부사'는 서술어를 수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주'가 'N-이다'구성의 서술어를 수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정도 부사'라는 점에서 같이 공기할 수 있는 명사의 유형을 제약한다.

(1)-(3)은 한 단어가 속한 어휘 체계가 구문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들이다. 그러나 어휘의 분류 체계가 단어의 통사·의미론적 역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관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 (4) a. 나무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는지 가지를 번쩍 들어 보였다.  
 b. 사자는 그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하이에나의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다.  
 c. 그 공에 나비가 앉아 즐고 있다.  
 d. 그는 서울에 살면서 서울을 가꾸는 일을 천직으로 안다.  
 e. 철수가 학교로 갔다 / 움직였다  
 f. 철수가 학교로 \*머뭇거렸다.  
 g. 그렇게 두꺼운 소설을 하루만에 읽다니.  
 h. 그렇게 재미있는 소설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

(4)의 예들은 (1)-(3)과 같은 유형의 예임에도 불구하고 (1)-(3)에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어휘 체계의 작용 양식이 실제 문맥에서는 다중적임을 말해 준다. (4a-b)는 해당 문맥 내에서 의인화되어 사용됨으로써 그것의 분류 체계가 전환된 예이며, (4c-d)는 공간물과 개체물이라는 분류 체계가 (4g-h)는 구체물과 추상물이라는 분류 체계가 문장의 생성과 해석 과정에서 의의를 갖지 못하는 예들이다. (4e)는 이동과 움직임이라는 동사의 분류 기준이 의의를 갖지 못하는 예이고, (4f)는 움직임 동사는 그 하위 유형의 특성에 따라 행동 양식이 달라짐을 나타내고 있다.<sup>10)</sup>

9) 손남익(1995)는 국어 부사의 통사·의미론적 특성 규명을 목적으로 하여 부사를 의미 분류하여 그것의 특성을 살핀 최근의 연구 성과이다. 부사에 대한 연구는 이를 참조하라.

이들은 모두 어휘 개별적인 의미 특성이 문장의 새로운 해석을 강제하는 예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개별적 특성은 해당 단어가 분류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미 유형을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개체물'이 '공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반복성'을 띠지 않는 '동작성'은 '이동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추상성'은 그것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개체물'의 속성을 내포한다는 식의 복합적 의미 유형이 나타난다. 복합적인 의미 유형 중 하나가 문맥 조건에 의해 선택되면, 문맥 내에서의 활동은 그 의미 유형에 의하나 유형은 그것의 근원인 '부류' 정보를 내포하는 양상을 띠 것이다.

Pustejovsky(1993, 1995)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의미 실현이 명사의 속성 구조(Qualia Structure)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속성구조와 의미 해석을 관련짓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sup>11)</sup>, 여기에 분류 체계 정보를 추가한 최경봉(1998)의 견해를 수용하여 (4g-h)에 나온 '소설'의 의미 구성을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다.

(5) 소설(\*\*\*)

[部類

[上位概念, 문학]]

[屬性

[유형, 이야기 내용·사물]

[構成役, 이야기(\*\*\*)]

[形相役, 책(\*\*\*), 디스크(\*\*\*)]

[機能役, 읽다(y, \*\*\*)]

[作因役, 가공품, 쓰다(y, \*\*\*)]]

위의 구조를 통해 본다면 (4g-h)의 다의성은 상위의 '유형'과 아래 제시된 '구성역, 형상역, 기능역, 작인역'의 정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g-h)는 '소설'이 갖는 의미 유형(type)의 복합성을 보여 주는데, 의미 유형의 복합성은 '유형' 항목에서 표시된다<sup>12)</sup>. 그런데 의미 유형은 결국 '구성

10) 이 예는 양정석(1999)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동동사와 구별되는 움직임동사들을 의미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구문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NP로'가 통합될 경우의 이심적 의미 합성 문제를 어휘 구조로 나타내는 문제를 논하고 있다. 국내에서 동사의 분류 체계와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는 없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Levin(1993)을 참조할 수 있다.

11) 유형강제(type coercion), 선택결속(selective binding), 합성(co-composition)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의미의 적합한 생성과 해석을 유도하는 책략이다.

역'과 '형상역'의 정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단어의 선택 제한에 작용한다.

이때 '부류' 항목은 해당 단어의 외적 체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 분류 체계와 관련을 맺는데, 속성 자질의 계승 체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상위어의 다의적 양상이 하위어에도 계승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소설'은 '문학(작품)'을 그 상위어로 갖는데, 이때 '문학(작품)'의 속성역에서 비롯된 '의미유형'은 '형상역, 기능역, 구성역, 작인역'과 같은 네 가지 속성역과 함께 '문학(작품)'의 하위어(소설, 시, 수필 ...)에 그대로 계승되어 단어의 다의적 쓰임에 관계한다. 또한 '부류' 항목에 나타난 해당 단어의 관계 의미를 통해 동일한 의미 제약이나 의미 특성을 보이는 어휘군을 파악할 수 있다. '소설'의 부류를 '문학(작품)'으로 설정한 (2)의 의미 구성을 통해 우리는 '소설'이 '시, 수필, 동화, ...'과 의미 관계를 맺는 명사라는 사실을 함께 나타낼 수 있다.

(5)와 같이 기술한 단어의 의미 구성은 어휘 항목의 의미 구성이라는 점에서 의미 자질과 유사성이 있지만, 문장을 이루는 단어들의 어휘 항목 정보가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각각의 의미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의미 자질과는 차이를 보인다<sup>13)</sup>. 또한 의미 확장 과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원형 이론과의 유사성이 발견되지만, 심리적 단위인 원형이라는 개념을 실질적인 언어 정보인 속성역의 묶음으로 표현하고 속성역의 활성화나 대체(代替)로 의미 확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원형 이론과 차이를 보인다.

### 3. 단어의 의미 확장 과정에서 단어 의미 구성의 역할

12) Pustejovsky(1995)에서는 일반 명사 또한 속성구조와 별도로 논항구조를 갖는다고 보고 별도의 논항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본고에서 속성 항목에 '유형'이라고 표시한 항목은 '소설'의 논항구조에 나타난 두 개 논항을 복합유형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설'은 '\*x\*'로 표현되었지만 여기에는 '논항1=이야기 내용, 논항2=사물'이라는 논항구조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13) Pustejovsky(1993, 1995)에서 비롯되는 생성 어휘론에서는 의미 구성 정보의 선택적 작용으로 인해 문맥 내에서 단어가 본질적으로 다의성을 띤다고 본다. '소설'과 같은 단어도 "오늘부터 그 소설을 시작하기로 했어."라고 했을 때 '기능역'의 정보가 선택되느냐, '작인역'의 정보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소설 읽기를 시작했다'로 해석되기도 하고, '소설 쓰기를 시작했다'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 단어의 문맥 내 의미 변이라 일컬어지는 다의적 의미 작용 양상은 단어의 의미 구성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을 앞 장에서 살폈다. 이는 결국 단어의 의미 변이가 어휘 체계나 속성의 정보에 바탕을 둔 추론의 과정임을 말해 준다. 이 중 단어의 의미 확장은 속성역의 일부가 轉換 (conversion)되거나 부류가 전환되어 단어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의미 구성 정보의 선택이나 활성화를 통해 의미를 변이시키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장에서는 단어의 의미 속성과 분류 체계가 단어의 의미 확장 과정에서 행하는 역할을 살펴 보면서 그 행동 유형을 나누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예들은 개별 속성의 전환에 따라 의미 확장을 이루지만 이러한 의미 확장의 많은 부분은 상위어의 속성에서 연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속성의 전환 양상이 동일한 부류에서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sup>14)</sup>.

(6) a. 전라도는 인심이 좋다.

b. 우리 마을이 이번에도 우수마을로 지정될 수 있을까.

c.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다는 요지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d. 은행에서 철수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6a)와 (6b)에서 '전라도'와 '마을'은 공간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사람'의 의미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단어 의미 구성에서 '부류'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충청도는 '공간물'이며 '행정구역'이라는 점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내용을 기능역의 정보로 나타낼 수 있다. [기능역, 살다(y, \*x\* <Loc>)]에서 나타나는 정보 내용에서 장소(Loc)는 행위자(Agent)로 전환되며, 이는 부류의 전환으로 이어진다. 이는 '공간물'로 분류되면서도 '조직체'의 의미를 갖는 어휘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6c-d)가 그러한 예이다. 특히 (6d)의 예는 '-에서'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성 정보의 활성화에 의한 부류 전환을 통해 '주어'로 활동하는 특이성을 보인다.<sup>15)</sup>

14) 본 논의에서 사용한 예는 많은 부분 본인의 이전 논문에서 사용한 예들을 재인용한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부류의 공통성과 속성 전환의 동일한 방향성을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이들 예를 재고찰할 것이다.

15) 김양진(1999)에서는 '단체명사+에서'가 문장의 주어처럼 보이는 이유를 '법인



- (7) a. 그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  
 b. 그는 빠른 두뇌를 가지고 있다.  
 c. 민중의 발이 되었다.  
 d. 한국의 두뇌가 모두 여기 모였다.

(7a-b)에서 ‘빠른’은 각각의 문맥에서 ‘생각의 속도’와 ‘걸는 속도’와 같은 문맥 의미를 갖는다. 이는 ‘발’과 ‘두뇌’가 갖는 기능역 정보의 활성화에 근거를 두고 ‘빠르다’가 다의적 양상을 보이는 예이다. 그러나 (7c-d)의 사람의 구성 성분인 개체물로서의 ‘발’과 ‘두뇌’가 아니라,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전체인 ‘사람’으로 부류 전환이 되었다. 따라서 (7a-b)의 문맥적 변이와는 다른 의미 확장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7c)는 구성역 정보인 발(\*\*\*)[부분(y)]가 교체 전환되면서, ‘사람’으로의 의미 해석을 강제하지만, (7c)의 ‘발’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특정한 사람’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걷다(y, \*\*\*)<Inst>)]와 같은 기능역 정보를 복합적으로 요구한다. (7d)에서 ‘두뇌(\*\*\*)’는 ‘구성역’으로서 ‘사람(y)의 부분’이라는 정보를 갖지만, 그 ‘기능역’은 [생각하다(y, \*\*\*)<Inst>)]가 된다. 여기서 ‘도구’는 (7c-d)에서 공통적으로 ‘행위자’로 전환된다. 이때 ‘부분’과 ‘전체’의 의미 관계에서 ‘부분’에 속하는 어휘류들이 대체적으로 ‘전체’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도구’의 ‘행위자’로의 전환은 어휘 체계와 체계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7c-d)와 관련지어 특징적인 것은 “민중의 손이 되었다”나 “한국의 머리가 모두 여기 모였다”가 의미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문장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손’과 ‘발’, ‘두뇌’와 ‘머리’가 갖는 의미 특성상의 공통성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한 대상의 부분이 그 전체의 의미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환유적이라는 공통 특성을 보이면서, 부분들 간의 어휘 관계에 따라 새로운 의미 확장이 체계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의미의 전환이 속성역의 부분적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의 예들과는 차이가 있다.

- (8) a.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그의 자리가 위태롭다.  
 a' 피곤해서 자리에 앉았다.

---

자질’을 갖는 단체 명사의 어휘적 특성과 ‘서’의 형태구조적 특성을 통해 설명하였다.

- b. 요즈음은 영화 볼 틈도 없이 바쁘다.
- b' 벽과 벽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다.
- c. 둘 사이에 틈이 생긴 것 같다

(8)에서 밑줄 친 단어의 목표 영역은 '추상'이지만, 매체는 '구체 영역'이다. 서로 다른 부류가 다의적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자리'와 '틈'이 단어 의미 구성에서 복합적인 의미 유형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의미 유형은 '공간·직위'나 '공간·시간'과 같이 표현되며, 의미 유형의 복합성이 부류 전환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의미 항목 사이에 필연적인 관련성은 없다. 물론 인지적 추론을 통해 의미 항목 사이의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추론의 비대칭성으로 볼 때 이는 속성역의 대응을 통한 개념적 유사성에 가깝다<sup>16)</sup>. 여기에서는 의미 확장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다. 즉, '구체물->추상물'로의 전환이나 '공간물->시간'으로의 전환 등으로 일관성을 띠고 나타난다<sup>17)</sup>. 부류의 전환이 속성역의 대응을 통해 개념적 유사성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아래의 예와 유형상 같다.

- (9) a. 책상의 다리가 부러졌다.      b. 산허리에 오르다.

위의 예는 (8)과 같은 유형으로 판단되지만, 구체물 내에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어휘 체계상 빈자리(lexical gap)의 대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18)</sup>. 어휘 체계상의 빈자리를 채우는 언어 내적인 책략으로는 목표 대상 단어를 다른 부류의 단어로 대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9)의 예에서도 '유정물'의 부분이라는 '다리'의 구성역 정보는 '책상'의 부분이라는 구성역 정보로 전환된다. 이는 개념적 유사성을 파악하는 인지 작용에 의해 관계지어진 만큼 그 성격은 (8)과 유사하다. 이 경우에도 그 인지 작용은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즉, '인체'의 부분이 개념적 유사성

16) 추상적인 의미인 '직위'에서 '앉는 기능을 하는 설비'로의 유추는 '앉는 기능을 하는 설비'에서 '직위'의 유추에 비해 훨씬 부자연스럽다. (6b,c)도 구체 공간의 추상화가 이루어진 예라는 점에서 (6a)와 마찬가지로이다.

17) 임지룡(1997)에서는 다의어의 의미 확장 방향에 대해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8) 산의 중간 지점이나 책상의 받침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어휘적 공백의 일종이다.

을 보이는 ‘다른 사물’의 부분과 대체되는 방향의 체계성은 ‘산동’, ‘머릿돌’, ‘길목’ 등에서도 보인다<sup>19)</sup>.

- (10) a. 버스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b. 자동차가 지쳤다.

(10a)의 예에서는 ‘버스’가 유정물화된 버스로 해석되며, ‘버스’의 원의미가 보존된다면 ‘잠자리에 들다’는 ‘차고에 들어가다’의 의미로 해석될 것이다. 주체와 서술 사이에 의미상 괴리<sup>20)</sup>가 있다는 것은 (10b)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0b)는 ‘자동차’와 ‘지치다’와의 연결되면서 ‘무정물’인 자동차가 ‘유정물’로 전환된 경우이며, 이때 ‘자동차’의 원의미가 보존된다면, ‘지치다’의 의미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 등의 의미로 해석될 것이다. 이는 문맥 조건에 따라 단어의 어휘 부류가 전환되는 예로, 전환은 문맥 내에서 결합되는 서술어에 의해 결정되며, 서술어의 속성과 관련되는 명사의 부류와 개념적으로 연관된다. 즉, ‘지치다’라는 서술어의 속성과 관련되어 ‘자동차’는 ‘동작성 물체’와 개념적으로 연관되며, 이를 통해 ‘유정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는 ‘동작성 물체’라는 의미 영역에 속한 모든 어휘들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체계적이다.

- (11) a. 남자는 다 늑대라니까.  
b. 우리 조직 내에 박쥐새끼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아.  
c. 선거 때만 되면 표를 낚기 위한 낚시가 시작된다.

(11)은 유형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매체어(vehicle)를 대응시키는 은유 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문장이다. 이때 매체어는 목표어와 단어 의미 구성상 논리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특성을 갖는다. (6)-(10)의 예가 의미 구성의 작용과 관련된 의미 확장인 것과 비교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11a-b)는 ‘부류’의 전환으로 ‘동물’이 ‘사람’으로 의미해석되지만, 이 전환은 명사의 속성과는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류’의 전환이다. 이때 부류의 전환은 상징에서 비롯되었으며, 상징은 주로 관습적 상징이 된다는 점에서

19) 이는 어휘 대체시 언어 주체와 보다 근접한 대상의 지칭어가 우선적으로 선택됨을 말해 준다.

20)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자질 이론은 선택 제약 위반을 들었다.

특이성을 보인다<sup>21)</sup>. 또한 (11c)는 '선거'를 '뉴시'로 비유한 예인데, 이 경우에도 매체어와 목표어 사이의 대응은 필연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의미 확장을 통한 단어의 다의성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의미 확장 현상이 일정하게 어휘 체계와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의 예는 '속성역'의 변환이 궁극적으로 해당 단어의 분류 체계에 일시적인 전환을 가져 온다는 것과, 이때의 전환이 일시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조직화된 공간물일 경우 그 전환이 규칙적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임을 보여 준 예였다. (7)의 예는 환유적 비유 기법에 의한 의미 확장의 유형을 보이는데, 이 또한 분류 체계와의 연관성 내에서 의미 확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의 예는 의미 속성과 논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의미 확장이라는 점에서 (6), (7)과 구분되는 예이지만, 의미 확장과 전환이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적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어떤 대상의 표현을 다른 인지적 연관성을 갖는 다른 대상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부류의 변환은 (6)과 (7)처럼 방향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0)의 의미 전환은 '부류'의 전환이되, '개념적 연관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데에서, (11)과는 구분된다. 반면 (11)의 예는 매체어와 목표어 사이에 필연적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위의 체계적 확장과 구별된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의미 확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의미 속성 정보와의 개념적 연관성을 유지하는 전환에 의한 의미 확장의 경우이고, 둘째는 화용적 맥락에서만 개념적 연관성이 유지되는 은유적 의미 확장이다. 첫째의 경우가 지금까지 논의된 단어의 의미 구성과 밀접한 관련하에서 발생했다면, 둘째의 경우는 단어의 의미 구성 작용을 새롭게 적용한 경우이니만큼 장을 달리하여 상세히 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은유적 의미 확장과 어휘 체계

이 장에서는 은유의 생성과 해석 과정에서 어휘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21) 관습적 상징은 언어마다 그 상징 체계가 다르다는 점이 한 특징이다. 한국어에서 '곰'은 우둔한 사람을 나타내지만, 영어의 'bear'은 난폭한 사람을 나타낸다. 이는 단어의 의미 확장 방향과 비유 대상의 속성 사이에 관련성이 없음을 나타낸다.

관여하는가 하는 문제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단어의 의미 구성이 작용하는 구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부류' 항목은 해당 단어를 어휘 체계와 관련시키는 통로로, '단어의 의미 구성'의 대체는 어휘 체계의 대체로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은유적 의미 확장에 관여하는 어휘 규칙은 '단어의 의미 구성'이 대체된 어휘 체계와의 관련 아래 대체 의미를 능동적으로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체계성을 띠며 진행되는데, 이는 단어의 의미 확장이 다양한 관련 어휘를 환기시키며 의미 확장을 생산적으로 진행시키는 데에서 볼 수 있다.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들간의 먹이사슬 관계가 인간세계의 인간 관계에 대응되어 인지되는 예나, '냥시'의 관련어가 '선거'의 의미 영역을 상당 부분 대체하며, '선거'와 '속성'상 유사한 다른 목표 영역들의 은유에 '냥시' 관련어가 체계적으로 개입한다. (11)과 관련지어 다음 예를 보자.

- (12) a. 여기는 늑대의 발톱에 할린 상처 받은 사슴들의 썩터입니다.  
 b. 아니 정말이지, 이왕이면 미인외 냥시에 걸리고 싶죠.  
 c. 선거 때만 되면 표를 냥겠다고 냥식밥을 던지고 그물을 치고 난리입니다.

(12a)의 예는 '늑대'와 '사슴'의 먹이 사슬 관계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설정을 하고 있다. '늑대'가 일단 '남자'의 의미를 획득하면, '사슴'은 자연스럽게 '여자'를 지칭하게 된다. (12b-c)는 '냥시'의 의미장과 관련되어 발생한 의미 확장의 예이다. 한 의미장에서 관계는 은유 표현에서 다른 의미장의 것으로 바뀐다. 청자는 전이된 관계의 관점에서 두 번째 장의 개념들을 분류하고 모든 속성들을 재배치한다. 이는 매체 의미장에서의 관계를 흉내내는 관점에서 목표 의미장에서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거운동은 냥시이다', '구애는 냥시이다'라는 등식하에 의미해석이 이루어진다. 이때 '냥식밥, 그물' 등은 '냥시'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냥시'의 의미 확장과 같은 방향으로 의미 확장을 이룬다.

특히 (12c)는 '냥시'를 매체 영역으로 하여, '선거' 영역에 대한 표현이 이루어진 예이다. '냥시'에서 '선거'로의 부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부류 전환은 '냥시'에 존재하는 의미 관계가 '선거' 영역의 표현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한다. '냥시'의 의미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물고기', '냥시밥', '그물', '투

망', '고깃병', '닭시바늘' 등의 단어들에 대한 상황을 표현하는 데 체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닭시'의 의미 구성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3) 닭시(\*x\*)

[部類]

[上位概念, 수렵도구]

[屬性]

[유형, 사물·행위]

[기능역, 닭다(y(Agent), x(Instrument), z(theme))]

위에서 '닭시'가 의미 유형으로 '사물·행위'를 취하는 것은 '닭시'가 도구를 의미함과 동시에 '닭시다'라는 파생이 가능한 다의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능역 정보는 '닭다'가 'Agent(사람)-Instrument(닭시바늘, 그물, 닭시(바늘))-Theme(물고기)'를 의미 논항으로 하며, '닭시'가 '닭다'의 의미 구성에 '도구(Instrument)'로써 관여함을 나타낸다. 이때 도구인 '닭시'와 계열 관계를 이루는 어휘로는 '닭시바늘, 그물, 닭시바늘, 고깃병 ...'을 들 수 있다. 계열 관계를 이루는 이들 어휘들은 '닭다'와 결합적 관계를 형성한다.

(12c)에서 '닭시'의 의미장은 '선거운동'과 상호 대응한다. 이때 '선거운동'은 '설득행위'라는 의미장의 한 분절을 차지하며, 의미 특성과 제약은 '설득'의 의미 구성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선거운동'은 '설득 행위'의 어휘 체계와 관련을 맺는다.

## (14) 선거운동

[部類]

[上位概念, 설득 행위]

[屬性]

[유형, 행위]

[기능역, 설득하다(y(Agent), x(Instrument), z(theme))]

위의 예에서 '선거운동'은 기능역 정보로 '설득하다(Agent(운동원)-Instrument(돈, 물건, 호소, 공약)-Theme(유권자))'의 의미 구성을 갖는다. 이는 '선거운동'이 '설득행위'의 의미장에 속한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이때 '선거 운동'과 '낙시'의 장이 상호 대응되며 은유 표현이 생성된다. (13c)에서 '표'와 '낙식밥'과 '그물'은 목표 영역인 '선거운동'의 기능역과 대응되어, '물고기'와 '돈, 물건, 호소, 공약'과 같은 의미로 확장된다. 이때 기능역으로 대표되는 속성역의 정보는 결합적 의미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부류 정보가 계열적 의미장과 관련되는 것과 비교된다.

이처럼 계열적 의미장으로 표현되는 어휘 체계의 정보는 결합적 의미장으로 표현되는 속성 정보와의 관련하에서 은유 표현을 다양화한다. '매체어'의 '기능역'에 나타나는 '낙다'가 '설득하다, 유혹하다' 등의 목표 영역 서술어와 호응한다고 할 때, '낙시'의 의미 관계는 '선거운동' 뿐만이 아니라, (12b)와 같이 '구애(求愛)' 등의 의미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선거운동, 구애' 등의 목표 영역을 표현하는 데에, '낙시'의 상위 개념인 '수렵도구'와 관련된 어휘들이 폭넓게 적용될 수도 있다. "무차별적인 표 사냥에 나섰다."나 "그녀가 드디어 내가 쳐 놓은 울가미에 걸려 들었다." 등은 '낙시'의 부류 정보와 관련된 의미 확장의 예이다<sup>22)</sup>.

이상을 통해 볼 때 은유 표현에서 단어를 선택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매체어와 목표어의 어휘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sup>23)</sup>. 은유 표현에서 매체어의 선택은 목표 영역과의 상호 대응 가능성에 의해 선택되며, 매체어의 어휘 체계는 목표 영역의 어휘 체계와 체계적인 관련을 맺으며 새로운 해석과 표현 양식을 확대 재생산을 한다. 어휘의 의미 관계에 의한 체계적인 대응은 아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은 동사나 형용사와 관련된 예들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명사에 비해 '계승 체계'보다는 '반의'나 '유의' 등과 같은 의미 관계가 표현 양식의 확대 재생산에 더 많이 관여하

22) 위에서 '낙시'를 '선거운동, 구애' 등의 의미 영역에 적용시키는 것은 '낙시'와 이들 목표 영역 사이에 인지적 추론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인지적 추론은 텍스트의 의도 파악을 위한 강제적 추론이 관용화된 성격을 띤다. 따라서 관용화에 대한 역작용으로 목표영역을 표현하는 매체어는 변화를 거듭한다. 매체어 변화의 첫 출발은 기존 매체어의 부류 내에서 대응어를 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선거운동과 구애가 사냥에 대응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23) 결합적 의미장 이론에서는 문체적 효과를 갖는 표현에서 의미장의 역할이 논외였다. 그러나 이들은 은유 표현의 생성시 의미체계에 따른 단어의 선택 양상이나 해석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는 않았다. 단어의 선택이나 해석 과정에 대한 치밀한 접근은 Kittay(1987)에서 나타난다. 의미장을 통한 은유 표현의 해석 방법은 Kittay(1987)을 참조하라. 국내의 연구로는 정원용(1996)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의미장 이론을 소개하면서 은유의 의미를 의미장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동사나 형용사가 주로 국면의 전환이나 상태의 변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 (15) a. 민중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 잠들기) 시작했다.
- b. 드디어 내가 산 주식이 (오르기 / 내리기) 시작했다.
- c. 한국의 경제 상황을 매우 (어둡게 / 밝게) 보고 있다.
- d. 자네 정보가 (어둡구만 / 밝구만).
- e. 귀가 (어두워 / 밝아) 작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 듣는다).

위의 예는 은유 표현에서 반대 표현의 예를 함께 나열한 것이다. 추상물이나 구체물, 혹은 추상적 상황 전환을 ‘실제 공간 상황의 전환’으로 인식하여 표현한 것은 기본적으로 적용상의 전이를 통한 의미의 확장이니만큼 은유의 한 유형이다. 이때 매체어들은 ‘공간 상황’의 의미장에서 보여준 대립 체계를 목표 영역을 표현하는 데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좋은 상황에 ‘밝다’를 썼으면 나쁜 상황은 ‘어둡다’가 되고, 상승 국면을 ‘오르다’로 썼으면 하강 국면은 ‘내리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의미 관계가 이분법적인 ‘반의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정도 대립’의 양상이 그대로 적용되어 표현의 확대 재생산에 관여한다. 아래의 예는 매체어의 의미장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예이다.

- (16) (성격이) 화끈하다 /따뜻하다 /온화하다 /미지근하다 /차갑다

(16)은 ‘온도어장’이 ‘성격 표현의 장’으로 전환된 예이다. 이 경우 매체어인 온도어장의 체계는 ‘성격 표현의 장’에 그대로 투사됨으로써, 성격 표현의 표현 체계를 새롭게 규정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러한 대체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음은 이러한 대칭이 어색하게 여겨지는 예이다.

- (17) a. 가볍게 / ?무겁게 / 강하게 입을 맞추었다.
- b. 가볍게 / ?무겁게 / 심각하게 여겼다.

이는 대칭은 인지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며, 언어적 실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본고에서 지금까지 제시한 어휘 체계적 대칭 양상은 은유적인 의미 확장이 우연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은유적인 의미 확장을 이룬 단어는 새로운 문맥 조건이 형성되면 확장 의미를 기반으로 의미 파생을 진행하는데, 은유 표현의 발생이 우연적인데 비해 의미 파생의 과정은 상당히 규칙적인 모습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 (18) a. 여자는 꽃이다.  
 b. 어머니는 우리 집안의 꽃이다.  
 c. 그대는 장미, 나는 그대의 향기에 취한 한 마리 나비.  
 d. 칸나 미용실, 꽃의 정원  
 e. 남자는 정원사이다.

위의 예에서 (18a)의 은유 표현이 기본 표현으로 정착되면, (18b)의 은유 표현은 '여자'의 어휘 관계에 의해 하위어의 '어머니'에게로 계승된다. 이는 다시 '꽃'의 어휘 관계에 의해 '장미'이 계승되어 (18c)의 표현을 만든다. (18d)는 이러한 계승 관계가 복잡하게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정원'은 '꽃이 있는 곳'의 속성역이 있으며, '꽃'과 '정원'의 관계는 '여자는 꽃이다'라는 은유를 기반으로 하여 '정원'과 '미용실'을 연결시킨다. 이는 다시 (18e)의 은유를 파생시키는데, '정원사'와 '꽃'의 관련성은 '정원사'의 단어의 의미 구성 정보 중 하나인 '꽃을 가꾸는 사람'이라는 속성역을 통해 파악되고, '세상이 남자에 의해 움직인다'는 남성중심적인 전제를 통해 '정원사'와 '남자'를 연결시킨다. 이는 '남자가 여자를 보살핀다(아름답게 한다, 가꾼다)'라는 의미를 생성시킨다.

유추가 곧바로 되지 않는 표현일수록 은유적 긴장감은 높아진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은유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책략의 하나로 관습적 은유를 파생 어근으로 삼아 은유 표현을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if ~ then'의 논리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if ~ then'의 논리 관계에는 단어의 의미 구성을 중심으로 한 어휘의 계열적, 결합적 의미장 정보가 바탕이 된다<sup>24)</sup>.

24) 'if-then' 논리 관계에 의한 은유 표현의 생성 문제에 대해서는 최경봉(1997)을 참조하라. 최경봉(1997)에서는 Steinhart(1995)의 논의를 참조하여 은유 생성의 스크립트(script)를 제시하였다.

## 5. 결론

이상으로 본고는 의미 확장 현상에 단어의 의미 구성 정보가 관여하는 양상을 살펴 보았고, 이를 통해 단어의 의미 확장이 어휘 체계와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진행됨을 밝혔다. 본고에서는 주로 명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어휘 전반으로 이를 적용시키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동사와 형용사의 분류 체계와 각 부류들의 통사·의미론적 특징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지 못한 만큼 이를 명사의 의미 구성과 관련지어 연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각 장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단어의 의미 구성을 살펴 보는 데 있어 어휘 체계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임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때 단어의 의미 구성은 Pustejovsky(1993, 1995)의 속성구조(Qualia Structure)에 어휘의 분류 체계 정보를 추가하여 재구성했다.

3장에서는 단어의 의미 구성 정보가 의미 확장에 관여하는 양상을 살펴 보았다. 이 과정에서 부류의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일어나는 각 속성역 정보들의 전환과 대체의 과정이 고찰되었다. 그리고 의미 확장의 유형을 '의미 구성 정보'의 적용 양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는 의미 속성 정보와의 개념적 연관성을 유지하는 전환에 의한 의미 확장의 경우이고, 둘째는 화용적 맥락에서만 개념적 연관성이 유지되는 은유적 의미 확장이다.

4장에서는 은유적 의미 확장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이 과정에서 어휘 체계가 관여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매체어'의 '어휘 체계' 및 '속성 정보'는 목표 영역의 '어휘 체계' 및 '속성 정보'와 체계적인 관련을 맺으며 새로운 해석과 표현 양식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강범모. 1992. "대화체 기계번역을 위한 사전의 통사", 언어학, 14.  
 강범모. 1999. "어휘 의미 정보의 구조와 표상", 한국어 의미학, 5.  
 김양진. 1999. "의사 주어 '에서'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한국어학회 1월 월례발표회 요지.

- 손남익. 1995. "국어 부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정석. 1999. "음직임 동사와 논항 연결, 재어나누기", 언어와 정보, 3-1.
- 우형식. 1996. 국어 타동구문 연구. 서울: 박이정
- 의미론연구회. 1997. "인지의미론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학, 5.
- 임지룡. 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정시호. 1994. 어휘장이론연구. 경북대 출판부.
- 정원용. 1996. "은유의 의미와 구조", 경성대학교 논문집, 17-1.
- 최경봉. 1997. "은유 표현에서의 단어의 의미론적 역할", 한국어의미학, 1.
- 최경봉. 1998. 국어 명사의 의미 연구. 서울: 태학사.
- 최경봉. 1999. "단어 의미의 구성과 의미 확장 원리-다의어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어학, 9.
- Fellbaum, C(ed). 1998. *Wordnet: An Electronic Lexical Database*, MIT Press.
- Kittay, E.F. 1987. *Metaphor: Its Cognitive Force and Linguistic Stru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Levin, B.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ustejovsky, J. 1993. "Type Coercion and Lexical Selection", in *Semantics and The Lexic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 Pustejovsky,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MIT Press.
- Pustejovsky, J and Boguraev, B. 1996. *Lexical Semantics-The Problem of Polysemy-*, Clarendon Press Oxford.
- Steinhart, E. 1995. "NETMET: A Program for Generating and Interpreting Metaphors", *Computers and the Humanities* 28.

570-749 전북 익산시 신통동 344-2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kbchoi@wonkwang.ac.kr